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JSBMF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제주 다봄집에서의 사역을 잠시 접고, 저희 부부가 이곳 동남아 예제원(예수제자훈련원)에 인턴선교사로 들어온 지 어느덧 삼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가을에서 겨울로의 이동이 한창인데, 이곳 동남아시아는 무더운 여름 우기를 지나 이미 건기로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과 함께 비교적 좋은 날씨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밖의 한낮 기온은 요즘도 섭씨 30도를 훨씬 넘는 열기가 남아 있지만 말입니다.

이곳에서 저희 부부가 하는 일은, 중국으로 탈북한 후 두세 국경을 거쳐 자유 세계로 넘어온 북한 출신 자매님들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들이 장차 맞게 될 새로운 나라에서의 삶에 대한 예비지식 등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삼 개월 동안 이곳 예제원의 생활 중에 어느 한 사람도 건강상 문제나 관계상 어려움을 겪지 않고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지난 8월 말에 들어와 약 삼 개월 동안 이 곳 예제원 과정을 마친 네 명의 자매들이 모든 양육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보내졌고, 지금은 이들보다 몇 주 늦게 들어온 자매들의 양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주 후, 또 다른 네 명의 탈북 자매들이 저희 예제원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지금은 그들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로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더 나은 양육을 위한 자료 보완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탈북민의 구출 사역과 관련해서는, 예전에 비해 비용과 여건 면에서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탈북사태의 현 상황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움과 함께, 복음으로의 통일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준비하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더우기 100여 년 전 북녘 땅에 먼저 꽃피웠던 복음의 빛을 다시 기대하는 한국 교회의 바람과 기도의 결과라 믿으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곳에 오는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을 살다 온 분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두가 복음은 물론 예수님에 대한 정보조차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인신매매 등의 이유로 (중국에서도 외지 등으로) 속아 팔려간 자매들이 대부분인 이유도 있겠지만, 현재 중국의  기독교 탄압 환경이 무척 심해진 이유도 있으리라 생각하며, 중국 정부의 변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탈북 자매들과 함께 먹고 지내면서, 하루종일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 뜻깊은 일이며,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 가는 자매님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동은 뭘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이 모두가 말없이 뒤에서 기도와 후원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덕분이라 믿고 있기에, 저희 또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삼 개월의 인턴쉽 예정보다 약 한 달 더 길어진 인턴 과정을 마치고, 저희 부부가 12월 2일에 약 삼 주 일정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갑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12월 17일, 소속 선교회의 자비량 장기선교사로 정식 파송을 받을 예정이며, 12월 말쯤에는 약 3년 일정으로 이곳 예제원에 다시 나올 예정입니다. 그 동안 저는 동역자들과 장차 다봄집의 사업 계획을 세울 예정이고, 아내는 미국 딸네 집에 잠시 다녀올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늦은 시간이지만, 저희 부부에게 늘 큰 지지와 격려로 힘이 되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늘 어디서든 주님께 변함없이 쓰임 받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늘 넘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부부의 사역과 성장에 중보기도자가 되어 주신 JSBMF 동역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아시아 소재 한 예제원에서,

이어짐, 홍실로 선교사 올림

Hello everyone!

After temporarily closing our McCaFo ministry center in Jeju, my wife and I have been conducting our internship in Southeast Asia with 예제원 (예수제자훈련원). For the past few months, we have been working with N. Korean female refugees, all of whom have crossed several borders to reach this interim place of safety. We have been sharing with these women the good news about Jesus Christ and our Creator God, as well as sharing helpful preliminary knowledge for adjusting to the new country they’ll be traveling to next. We praise the Lord that they have been learning and settling in without any health or relationship issues!

As these women come in intervals and stay for 3 months at a time, we have already sent off the first group of four ladies to S. Korea (after they finished their 3-month discipleship process), currently are residing with the second group who came a few weeks after the first and are preparing to welcome another batch of four women arriving in a few weeks.

In general, we have seen that most of these ladies have spent a certain period of time in China and endured various unfortunate experiences with human traffickers. Furthermore, these women have never heard the Gospel or anything about Jesus. As we’ve eaten and spent time together, sharing Jesus with these women and witnessing their transformation and confession of faith has been an indescribably and irreplaceably precious time. I thank God for your continued prayers and support and for God’s provision in making this possible.

As we wrap up this 3-month internship, my wife and I will head back to South Korea on December 2nd for a period of 3 weeks. In Korea, we will officially be dispatched as a full-time missionary from a mission organization on December 17th and plan to return for a 3-year period at the end of this year. During our leave, my wife will also travel back to the US to be with our daughter’s family and I will attend to some business matters with ministry partners for the McCaFo center(다봄집).

Prayer Requests:

* For the continued, safe, strategic rescue mission of N. Korean defectors
* For the re-unification of Korea
*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change their policies
* For the health, wisdom, and Spirit’s guidance as we seek to build relationships and disciples among these refugees
* that all of us will continue to be used by the Lord, wherever we are, and experience the fullness of His joy

We are always so grateful for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Blessings and love,

이어짐, 홍실로